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음 윤5월 4일) 제18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하도급지킴이’ 확대 부작용 개선이 우선

업체들, 시범운영서 과도한 행정업무 증가 지적
근로자 대금수급 여건 악화·현장 장악력 약화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주요 공기업에서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토교통부도 하도급지킴이 확대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여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하도급 업체에게만 과도한 행정 절차를 유발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체불발생 현장 등 일부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돼 왔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범사업 등 시스템 적용 현장에 참여해 본 하도급 업체들은 “전면 시행에 앞서 드러난 부작용들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먼저, 과도한 행정업무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신상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씩 참여 근로자가 바뀌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소비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시스템 이용 경험이 있는 A사 관계자는 “현장이 하루라도 쉬면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으로 빠져나가 새로운 근로자들로 현장을 채워야 하는데 매번 이를 등록하려다 보니 전담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할 만큼 행정소비가 심했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또 임금지급 주기 등 현장 사정과 시스템 처리 과정과의 괴리가 커 자재·장비대여 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수급 여건이 더 나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대금을 선지급하는 다른 현장들과 달리 시스템 적용 현장은 기성이 나

와야만 대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B사 관계자는 “시스템에 따라 하도급 업체가 기성을 받아야 자재대 및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현장보다 대금수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근로자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들은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맡고 있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 장악력 약화 문제도 지적했다.

자재·장비대여 업체와 근로자 등을 모두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임금 지급권을 잃을 경우 공사 진행에 불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동일한 문제가 제기돼 체불발생 현장 등 일부에만 선별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해 왔지만 새 정부의 체불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 우선 전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안재용 기자



절도있게 북한의 ITF 시범단이 26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태권도 꿈나무와 일반 도민들의 관심 속에 태권도 시범 공연을 펼쳤다. /김진성 기자

‘아부가우시 기다려라’ ... 이대훈, 준결승 진출

여자부 김잔디도 4강행... 오늘 저녁 준결승



한국 태권도 간판 이대훈(25·한국가스공사)이 세계선수권대회 3번째 우승을 향해 순항했다.

이대훈은 26일 무주군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68kg급에 나서 준결승에 진출했다. 개인 통산 3번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안방에서 열린 대회에서 정상에 복귀해 지난해 리우 올림픽 동메달의 아쉬움도 털어 내겠다는 각오다.

이대훈은 2011년 경주, 2013년 푸에블라에서 잇따라 이 체급 우승을 했지만 2015년 헬라빈스크 대회 때는 16강에서 탈락하며 3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현재 이 체급 세계랭킹 1위지만 가장 큰 2개 대회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셔 도전자의 입장이 썩다.

특히 지난해 리우 올림픽 8강에서 이대훈에게 패배를 안기고 금메달까지 목에 건 요르단의 아흐마드 아부가우시도 가볍게 준결승에 올라 설욕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다.

이대훈과 아부가우시가 27일 열리는 준결승을 나란히 통과한다면 결승에 맞붙는다.

이대훈의 준결승 상대는 불가리아의 블라디미르 달라를리에프(세계랭킹 31위)다.

여자부 67kg급에 출전한 김잔디(22·용인대)도 무난하게 준결승에 진출하며 첫 세계선수권 우승에 도전한다.

김잔디는 고교생 신분으로 출전한 2013년 푸에블라 대회 때 16강전에서 탈락했다.

이번이 두 번째 세계선수권 출전인 김잔디는 32강에서 빅토리아 에레디아(멕시코)를 17-6로 꺾은 뒤 16강에서 폴리아 칸(러시아)을 14-8로 제압했다.

8강에서는 세계랭킹 9위 파르다 아지조바(아제르바이잔)를 7-0으로 누르고 4강 진출을 확정했다.

김잔디의 준결승 상대는 세계랭킹 3위인 누르 타타르(터키)다. 타타르는 지난해 리우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이번 대회 톱시드를 받은 강자다. /김민근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에 내린 난비

타들어가는 ‘농심’ 한숨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오전까지 더 내릴 듯

전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어 가뭄으로 애타던 농가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강수량은 오후 2시 기준 고창이 55.5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순창 9mm, 무주 8mm, 진안 7.5mm, 군산 4.3mm, 전주 2.3mm, 정읍 1.6mm, 부안 1mm 등을 보이고 있다.

단비로 인해 그동안 가뭄으로 애타던 농가의 근심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북은 올해 평균 강수량 210mm로 평년(372mm)의 56.3%에 그치고,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6.5%로 평년 저수율보다 낮은 상황이었다.

전주기상지청은 27일 오전까지 도내에 10~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북 동부권 가야문화 유적 복원방안 마련

▶ 도, 장수서 심층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유적복원 체계화 관광자원화해 특화발전 계기로”

이달 유적발굴 TF구성 운영 11월 학술대회 개최 등 추진

전북도는 장수를 비롯한 동부권 지역에 내재된 가야문화 유적 복원방안 마련을 위해 26일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내 가야문화유적복원사업 관련자들과 하고자 마련됐다.

도내 가야문화권 시군별(장수, 남원, 임실, 진안) 유적현황 및 추진계획과

가야사 복원방안에 대한 논의한 후, 참석자들은 전국 최대 규모 제철유적이 있는 장수군 대적골과 삼봉리 고분 등 일대를 답사. 전북도 동부권 지역이 철기문화 중심지였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동부권 가야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복원, 관광자원화해 동부권특화발전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경상도 가야 고분군은 2015년 세계유산 우선등록 추진대상으로 선정돼 공동추진단이 활동하는 반면,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늦었다고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으니, 내실 있는 연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 과장관 관장은 “도내 가야문화 유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차별화하고 정체성 확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행정부지사 주재로 동부권 시군의 역점사업에 대해 도·시·군, 전문가와 함께 심층토론회를 실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부권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이번 심층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담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적 발굴 TF구성 운영(6월), 가야사 연구 복원 활용방안 연구용역(8월), 학술대회 개최(11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장수, 남원 뿐만 아니라 동부권 전체 미래발전전략으로 추진해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장수=고관호 기자

매일 INDEX

3면 - 부안 사립여고 '성추행' 감사 철거 4면 - 청소년이 만드는 '야호학교'

진안고원의 진안 홍삼

이래서 다릅니다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진안삼 사용!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